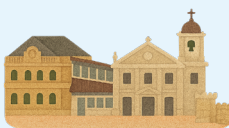


충청북도

은총의 길



기억의 발걸음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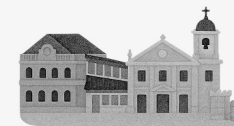
충청북도역사문화연구원

충청북도

은총의 길



기억의 발걸음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북도



충청북도역사문화연구원

Contents



PART 01

충청북도 어울리길이란?



PART 02

천주교가 궁금해요!



PART 03

은총의 길을 함께 걸어요!

은총의 길을 떠나기 전에!



정해진 시간도, 짜여진 일정도 없습니다.
각자 편한 시간에 자유롭게 탐방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방문 전에는 **각 장소의 개방시간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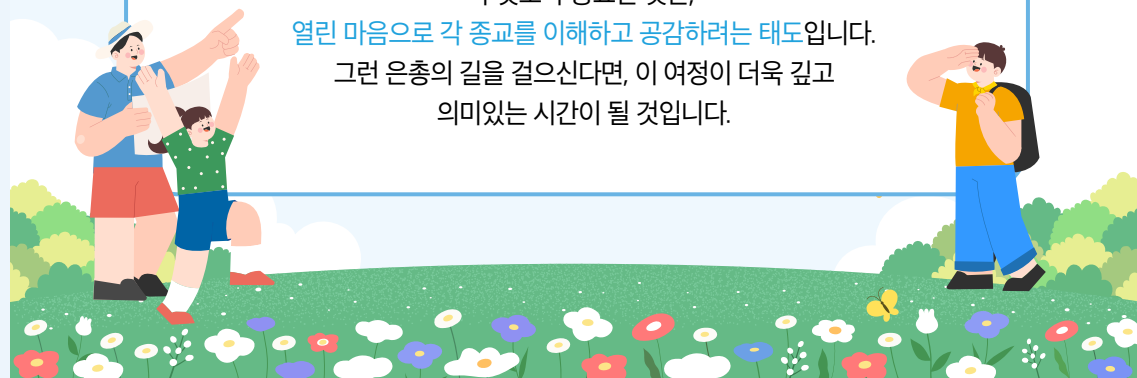
장소에 따라 미사나 예배 등 종교 행사가 진행 중일 수 있으니,
이때에는 **조용히 주변을 관람하거나 시간을 달리해 방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교시설을 찾으실 때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시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은 삼가시기를 바랍니다.
시설 내부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하시고, 음식물 섭취는 피해주세요.
사진 촬영이 가능한 경우에도 반드시 안내문과 현장 지침을 확인한 뒤
조용히 촬영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운영 중인 체험 프로그램이 있다면 참여해보시길 권합니다.
종교의 전통과 문화를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안내책자를 들고 다니기 불편하다면 책자 **상단의 QR코드를 활용**해
장소별 설명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개인 이어폰을 사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으로 각 종교를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태도입니다.
그런 은총의 길을 걸으신다면, 이 여정이 더욱 깊고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PART 01 어울리길이란?



어울리길, 함께 걷는 평화의 여정

충청북도는 오래전부터 백제·고구려·신라가 맞닿던 자리이자,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져 ‘중원문화’라는 독자적인 빛깔을 지켜온 곳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흐름은 종교문화유산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 서로 다른 종교가 나란히 어깨를 맞대며 공존해 왔습니다.

종교는 달라도 그 안에 담긴 바람은 같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으며, 평화로운 세상을 함께 꿈꾸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우리는 이 길을 열었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걸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열린 길 말입니다.

그 길에 우리는 ‘**어울리길**’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 갈래 길이 만나 하나로 이어지는 회전교차로에서 영감을 얻어, 두 가지 뜻을 담았습니다.

첫째, 서로 다른 종교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차이를 넘어 함께 걷고 소통하는 만남의 길,
둘째,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조화롭게 어울리기를 바라는
희망의 길입니다.

이 길 위에서 한 걸음을 내딛을 때마다, 우리는 차이를 넘어선 화합의 가치를 새기며 서로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리길 전체코스



PART 02 천주교가 궁금해요!



천주교란 무엇일까요?

천주교는 그리스도교의 주요 종파인 가톨릭교회를 가리킵니다. '가톨릭'이라는 말은 '보편적인' 또는 '공동된'이라는 뜻으로, 2세기 무렵부터 그리스도교 전체를 지칭하는 데 쓰였습니다. 조선시대 후기, 이 신앙이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하늘의 주님을 믿는 종교'라는 의미에서 '천주교(天主敎)'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천주교 신앙의 뿌리에는 네 가지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첫째,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절대적 존재로서의 하느님을 믿는 '천주존재(天主存在)'입니다. 둘째, 하느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성부(聖父),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성자(聖子), 거룩한 영혼을 가리키는 성령(聖靈)이 각각 계시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의 하느님이라는 '삼위일체(三位一體)'의 믿음입니다. 셋째, 착한 일을 하면 상을 주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내리신다는 '상선벌악(賞善罰惡)'의 가르침입니다. 넷째, 인간의 죄로 인해 잃어버린 하느님의 영광을 되찾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오시고,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강생구속(降生救贖)'의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 속에서, 천주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가장 큰 덕목으로 삼습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특히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천주교의 믿음은 불교의 '자비', 유교의 '인(仁)'과도 맞닿아 있어, 종교 간 공통된 가치를 보여줍니다.

천주교의 예배는 '전례'라 부르며, 그 중심은 '성체성사'가 이루어지는 미사입니다. 미사에서는 성경 말씀을 듣고,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된다고 믿는 성체성사를

거행합니다. 성당은 이러한 전례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공간이자, 하느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집으로써 신자들이 함께 기도하며 신앙을 나누는 장소입니다.

하느님의 사랑, 충복의 역사 속으로

우리나라 천주교의 시작은 1784년(정조 8), 조선의 지식인 이승훈(李承薰, 1756~1801)이 청(淸)의 북경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열렸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외국의 선교사를 통해 천주교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학자들이 '서학(西學)'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스스로 신앙을 품고 전파했다는 점에서, 한국 천주교는 매우 특별한 출발을 보여줍니다.

당시 조선의 백성들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고, 세도 정치에 시달리면서 지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굳게 믿고 있었던 성리학 중심의 사회 질서가 한계를 드러내자, 실용적인 학문을 추구하던 일부 학자들은 새로운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서학', 곧 '천주학'은 새로운 삶의 희망처럼 다가왔고, 그 안에서 천주교는 점차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당시 조선 사회를 지배하던 유교와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유교가 신분제도와 조상 숭배를 굳건히 지키려 했던 반면, 천주교는 모든 사람이 하느님 앞에 평등하다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조상 제사를 우상 숭배로 여겨 거부하였기에 갈등은 깊어졌고, 마침내 신앙은 탄압과 박해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충청북도 지역의 신앙은 진천의 배티교우촌을 중심으로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박해를 피해 숨어 지내던 이곳의 신자들은 청주와 충주로 천주교 신앙을 전하며 교세를 넓혀갔습니다. 우리나라의 두 번째 사제(司祭)인 최양업(崔良業, 1821~1861) 토마스 역시 배티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지역 공동체의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특히 청주는 충청병영이 있던 곳으로, 천주교 순교의 아픔과 영광을 함께 간직한 도시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1799년(정조 23) 4월 17일, 복자 원시보(1730~1799)가 신앙을 지키다 순교하여 청주의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이어 1800년 1월 7일에는 복자 배관겸(?~1800)이 모진 고문을 이겨내고 마침내 믿음을 지키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천주교 청주교구는 2002년, 신유박해 200주년을 맞아 청주 중앙 공원에 '순교자 현양비'를 세우고 신자들의 기도처로 삼았습니다.

충주읍성과 진천 배티교우촌 일대에서도 수많은 신자가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충남 갈매곶에서 목숨을 바친 괴산 출신의 양반 성 황석두(黃錫斗, 1815~1866) 루카는 1984년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에 의해 성인(聖人)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PART 03 은총의 길을 함께 걸어요!

충북의 성지와 성당, 순교지를 따라 걷는 이 길은 근현대 천주교가 전래되며 뿌리내린 역사와 신앙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순례의 여정입니다. 길 위에서 순교자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신념과 희생으로 지켜낸 신앙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는 위로와 성찰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걸을 때마다, 역사의 숨결 속에서 겸손과 감사, 희망을 되새길 수 있습니다. ‘은총의 길’은 누구나 마음을 다독이며 치유와 고요를 누릴 수 있는 열린 순례 길입니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진천 배티성지 | 충청북도 기념물

주 소 : 진천군 백곡면 배티로 663-13
 개방시간 : 9:00 ~ 18:00 (매주 월요일 휴무)
 문의사항 : 043-533-5710



진천 배티성지

진천 배티성지는 우리나라 천주교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순교 성지입니다. ‘배티’라는 이름은 본래 배나무가 많아 ‘이치(梨峙)’라 불리던 곳이 세월이 흐르면서 변한 지명입니다.

이곳은 1801년(순조 1) 신유박해 때 희생된 이들의 가족과 몰락한 양반들이 모여들면서 신앙촌이 형성되었고, 183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천주교 공동체가 자리 잡았습니다. 1840년대에는 제5대 천주교 조선교구장 다블뤼 안토니오(Antoine Daveluy, 1818~1866) 신부와 프티니콜라 미카엘(Michel Petitnicolas, 1828~1866) 신부가 이곳에서 신자들을 가르치고 이끌었으며, 우리나라 두 번째 사제인 최양업 토마스 신부 역시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며 신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1866년(고종 3) 병인박해가 일어나 수많은 순교자가 발생했고 마을은 큰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후 1870년경부터 신자들이 다시 모여 마을을 재건하였고, 1977년부터 성지를 신성한 곳으로 가꾸기 시작하여 오늘날 순례지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배티성지는 2011년 충청북도 기념물로 지정되었고,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순례길과 박물관, 둘레길이 조성되었습니다.



! 여기서 잠깐!



Q. 성경은 무슨 책일까요?

A. 성경은 ‘거룩한 경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은 한 권으로 묶여 있지만, 실제로는 73권(구약 46권, 신약 27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느님과 그분의 백성이 함께 겪은 역사, 수많은 기도, 하느님을 찬미하는 노래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 죽음과 부활 이야기를 전하는 복음서 4권, 교회의 시작과 성장을 전하는 사도행전, 그리고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 등이 담겨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성경은 하느님의 구원과 사랑을 인간의 언어로 기록한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무명 순교자 6인묘



진천 배티성지는 충청북도 진천군과 경기도 안성시가 맞닿는 깊은 산골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신자들은 조정의 눈을 피해서 신앙촌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병인박해로 이곳에서 약 50명의 순교자가 발생했는데, 그중 20명은 이름조차 전해지지 않습니다.

배티에서 안성으로 가는 고개 방향으로 약 1km 떨어진 곳에는 조그만 비석이 하나 서 있는데, 여기에 이름 없이 순교한 6인이 잠들어 있습니다. 원래는 7기였으나 1977년 두 기가 백곡 공소로 옮겨지고, 조사 과정에서 1기가 새롭게 발견되어 지금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복자 오반지 바오로 묘



무명 순교자 6인의 묘에서 조금 더 가면 복자 오반지 바오로(1813~1866)의 묘가 있습니다. 그는 1866년 병인박해 때 체포되어 천주교에 대한 믿음을 버리면 살려주겠다는 회유를 받았지만, 거부하고 끝내 청주에서 교수형으로 순교했습니다. 순교 이후 그의 유해는 지장골에 묻혀 있었다가 2017년 발굴되어 청주 서운동 성당, 진천의 진천성당·이월성당·배티성지, 괴산 연풍성지에 나누어 봉안되었으며, 나머지는 현재의 묘소에 안장되었습니다.

! 여기서 잠깐!

- Q.** 천주교에서 말하는 '복자'는 어떤 의미인가요?
- A.** 천주교에서 '복자(福者, Blessed)'는 교황이 신앙과 삶을 인정해 공적으로 공경할 수 있도록 선포한 인물을 뜻합니다. 성인이 되기 전 단계로, 특정 지역이나 공동체에서 기릴 수 있습니다.

오반지 바오로



오반지 바오로



진천 배티성지는 복자 오반지(吳盤池, 1813~1866) 바오로의 신앙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1813년(순조 13), 충청도 진천의 반지마을(옛 진천군 이월면 사곡리)에서 태어난 그는 한때 방탕한 삶을 살며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에게 전환점이 찾아온 것은, 40대 중반의 나이였습니다. 우연히 천주교 신앙을 접한 그는 큰 감화를 받아 교리를 배우고 세례를 받으며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신앙을 받아들인 뒤 오반지 바오로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교적 체념으로 자신의 본분을 성실히 지켜나갔습니다.

1858년, 가족과 함께 신앙의 자유를 찾아 진천 지장골(옛 진천읍 지암리)로 이주한 그는 모범적인 신앙생활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박해자들의 귀에도 들어가, 1866년 병인박해가 일어나자 청주에서 파견된 포교와 포졸들이 지장골로 들이닥쳐 그를 체포했습니다.

청주 진영(鎭營)으로 끌려간 그는 모진 고문을 받으면서도 “나는 천주교인입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동료들에게 피해가 갈 만한 질문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영장(營將)은 그의 믿음을 꺾기 위해 여러 차례 노력했지만, 오반지 바오로는 절대 꺾이지 않았고, 오히려 동료 신자들에게도 자신처럼 행동하라고 권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교우의 본분을 잘 지키고, 남의 빛을 갹아라. 그리고 만일 잡히게 되면 주님을 위해 순교하여라.”라는 당부가 담긴 편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1866년 3월 27일(음력 2월 11일), 오반지 바오로는 청주 읍청당 앞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영장은 마지막까지 “믿음을 버리면 살려주겠다.”라고 회유했지만, 그는 단호히 “만 번 죽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 없소.”라고 대답한 뒤 결국 순교하였습니다. 이때가 그의 나이 53세였습니다.

순교 직후 그의 시신 위로 푸른 무지개가 떠올라 하늘까지 닿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오늘날 그의 묘소 앞에 서면, 세상과 믿음 사이에서 흔들림 없이 하느님을 선택한 한 인간의 굳센 발자취가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무명 순교자 14인묘와 유 데레사의 묘



유 데레사의 묘



복자 오반지 바오로 묘에서 길을 건너 산길로 오르면, 14인의 이름 없는 순교자 묘가 있습니다. 이들은 병인박해가 일어나자 안성으로 피하려다 붙잡혀 곤장을 맞아 순교한 신도들로, 살아 남은 다른 신도들이 급히 이곳에 안장했다고 전해집니다.

유 데레사의 묘



배티성지 옛 성당 터에는 병인박해 당시 끝까지 신앙을 지킨 유 데레사가 잠들어 있습니다. 그녀의 남편 서윤서 역시 병인박해 때 순교하여, 배티에서 남쪽으로 약 1.5km 떨어진 은골 교우촌(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배티로 505-32)에 묻혀 있습니다.

삼박골 모녀 순교자 묘



삼박골 모녀 순교자 묘



배티성지에 이르기 약 2km 전, 오른쪽의 '삼박골 비밀 통로'라는 표지판을 따라 삼박골로 들어서면 모녀가 함께 잠든 묘소가 있습니다. 이들은 진사 이호준 요한의 부인과 딸로, 병인 박해 당시 불잡혀 순교했습니다. 묘소는 어머니가 위쪽, 딸이 아래쪽에 나란히 자리합니다.

삼박골은 병인박해 당시에 칼레 강 니콜라오(Fr. Nicolas Joseph Marie Ravoire Kang, 1833~1884) 신부가 약 열흘 동안 은밀히 사목 활동을 이어가던 곳이기도 합니다. 훗날 이곳의 이야기는 배티 출신 윤의병 바오로(1889~1950) 신부의 소설 『은화』의 소재가 되어, 신앙 공동체의 삶과 고난을 그려냈습니다.

최양업 신부 박물관



최양업 신부 박물관



‘순교 박해 박물관’으로도 불리는 이곳은 우리나라의 두 번째 사제이자 ‘땀의 순교자’라 불린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삶과 업적을 기리는 공간입니다. 2014년에 완공된 건물은 최 신부가 유학했던 마카오의 조선대목구 신학교 건물과 성 안토니오 성당을 본떠 지어졌습니다. 내부는 흰색으로 꾸며졌는데, 이는 땀으로 신앙을 증명한 최신부의 ‘백색 순교’를 상징합니다. 전시는 총 5개의 전시관과 기획전시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 천주교의 역사, 최양업 신부의 생애와 활동, 라틴어 편지와 한글 교리서 같은 그의 저술이 소개됩니다. 또한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통해 신부의 업적과 유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최양업 신부



손퐁금 소리와 함께한 신앙의 길



한국의 두 번째 사제로 잘 알려진 최양업 신부는 한국인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서양 음악을 접한 인물로 꼽힙니다. 그는 1837년 무렵, 마카오 신학교에 머물던 시절에 김대건(金大建, 1822~1846) 신학생과 함께 칼리리(Charles-Jean-Marie Callery, 1810~1862) 교장 신부에게서 성가를 배웠습니다. 당시 사용된 반주 악기는 프랑스에서 들여온 손퐁금이었습니다.

칼리리 신부가 그들에게 성가를 가르치기 시작한 계기는 특별했습니다. 조선 신학생들의 목소리가 거칠고 음정이 맞지 않아 이를 교정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다는 1837년 10월 6일자 서한(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험을 통해 최양업 신부는 자연스럽게 서양 성가와 음악에 눈을 뜨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훗날 조선에 돌아온 그는 1858년 스승인 르그레주아(Pierre-Louis Legrégeois, 1801~1866) 신부에게 서한을 보내 다음과 같은 요청을 하였습니다.

“서양 음악을 잘 연주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건반이 달린 약 30프랑 짜리 악기를 보내 주십시오.” (최양업 신부의 1858년 10월 3일자 서한)

이는 그가 서양 악기를 실제로 연주할 줄 알았으며, 조선 교회 안에서 활용하고자 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점에서 최양업 신부는 서양 음악과 악기를 조선에 소개한 선구자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조선교구 신학교 터



조선교구 신학교는 1850년(철종 1), 조선교구 제3대 교구장이던 장 조제프 페레올(Mgr. Jean-Joseph-Jean-Baptiste Ferréol, 1808~1853) 주교가 사제 양성을 위해 세운 곳으로, 한국 천주교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성 안토니오 다블뤼(Mgr. Antoine Daveluy, 1808~1853) 신부는 신학교 운영을 도우며 성당과 사제관을 겸한 초가집을 마련하여 1853년(철종 4)까지 신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이후 최양업 토마스 신부가 신학교를 맡아 1856년까지 머무르며 학생들을 가르친 결과, 1854년에는 3명의 신학생이 해외 유학길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현재 신학교 터 옆에는 최양업 신부와 그의 부모, 순교자 최경환 프란치스코(1805~1839)와 복녀 이성례 마리아(1801~1840)의 흉상이 세워져 있어, 이들의 신앙과 희생을 기리고 있습니다.

천주교 박해



천주교는 처음 중국을 통해 조선에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에게 새로운 학문이나 서양 문화처럼 여겨졌습니다. 정조는 유교가 잘 지켜지면 천주교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으로 생각해 처음에는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천주교의 평등 사상과 제사 금지 같은 가르침은 조선시대의 유교적 전통과 충돌해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집권 세력은 이를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천주교에 대한 조선의 첫 탄압은 1785년(정조 9) 명례방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세례를 받고 돌아온 이승훈(李承薰, 1756~1801)과 이벽(李檣, 1754~1786), 권일신(權日身, 1751~1791) 등이 서울에서 미사를 올리다 발각되었고, 중인 김범우(金範禹, ?~1786)가 투옥되어 사망하면서 천주교 최초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이어 1791년(정조 15) 신해박해에는 윤지충(尹持忠, 1759~1791)이 조상의 신주를 불태우고 천주교식으로 장례를 치렀다가 참수되었고, 주변 사람들도 체포되거나 유배되었습니다.

1795년(정조 19)에는 중국인 주문모(周文謨, 1752~1801) 신부가 조선에 들어오면서 율요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지방에서도 박해가 이어져 1797년(정조 21) 충청도에서는 100여 명이 희생되었고, 1801년 신유박해 때는 수백 명이 체포되고 처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황사영(黃嗣永, 1775~1801)은 배론성지에 숨어 천주교 박해 상황을 기록한 '황사영 백서'를 작성했습니다.

박해로 천주교인들은 산골 마을로 흩어져 서로 도우며 신앙을 지켜 나갔습니다. 1846년(헌종 12) 병오박해와 1866년 병인박해 때도 많은 신부와 신자가 순교하였고, 서울 잠두봉에서는 수천 명이 참수되어 '절두산'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1882년(고종 19) 조미수호통상조약과 1886년(고종 23) 한불수호통상조약으로 박해가 줄어들면서, 순교자들이 지킨 신앙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교와 성지의 의미

순교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 바로 순교자입니다. 조선시대에는 많은 천주교인이 신앙 때문에 체포되거나 처형되었는데, 이들이 바로 순교자입니다. 순교는 그 사람의 믿음과 용기를 기리는 뜻 깊은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지는 신앙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있었거나, 성인이 머물렀던 곳, 많은 기도가 이어진 곳이 성지가 될 수 있습니다. 성지는 신앙인들이 찾아와 기도하고 배우며, 과거의 신앙을 기억하고 이어가는 공간입니다.



괴산 연풍성지



음성 봉암성지

주 소 : 음성군 맹동면 봉현로 145

개방시간 : 상시 개방



음성 봉암성지



방축골과 계마대라 불리던 이곳은, 1839년(헌종 5) 기해박해 이후 박해를 피해 온 신자들이 모여 만든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최양업 토마스 신부도 이곳을 순방하며 교우들을 돌보았고, 신도였던 김백심 암브로시오(1794~1866)의 막내아들 김 사도요한(1835~1868)을 신학생으로 뽑아 유학의 길에 오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1866년 병인박해가 일어나자 방축골 역시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김백심 암브로시오와 그의 차남 김성서 파비아노(1829~1866)가 먼저 충주에서 참수로 순교했고, 이어 민윤명 프란치스코(1822~1866)가 충주 감옥에서 신앙을 지키다 목숨을 바쳤습니다.

김백심의 장남 김성희 바오로(1821~1868)와 막내 김 사도요한도 끝내 옥사와 교수형으로 순교하였으며, 이 베드로(1820~1866) 역시 수원에서 순교하였습니다.

이처럼 여섯 명의 순교자를 낳은 방축골과 계마대는 신앙 공동체의 뿌리를 잃지 않았습니다. 박해가 지나간 뒤 마을은 다시 세워졌고, 1896년(고종 33) 임 가밀로 신부가 이곳을 찾은 이듬해인 1897년에 봉암공소가 세워져 신앙의 불씨를 이어갔습니다.



음성 감곡성당 | 충청북도 유형문화유산

주 소 : 음성군 감곡면 성당길 10

개방시간 : 성당 9:00 ~ 18:00(월, 목) / 9:00~20:30(화~일)

야외 상시, 쉼터(성물방, 카페) 10:00~16:00 (월요일 휴무) / 박물관 9:00~16:00 (월요일 휴관)

문의사항 : 043-881-2808~9



음성 감곡성당



음성 감곡성당은 충청북도 최초의 성당이자, '매괴(玫瑰) 성모 순례지 성당'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매괴'는 장미이자 목주를 뜻하는 말로, 신앙 안에서 로사리오(목주기도)를 상징합니다.

성당은 1896년, 프랑스 출신 임 가밀로(Camille Bouillon, 1869~1947) 신부가 민응식(閔應植, 1844~?)의 99칸 한옥과 땅을 사들여 세운데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한옥 건물을 개조해 사용하다가 1903년(고종 40) 즈음 한옥과 고딕 양식을 절충한 성당으로 확장하였고, 교세 확장과 더불어 1930년에는 본격적인 고딕 양식 성당을 새로 지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장호원 본당'이라 불렸으나, 1958년 청주교구에서 현재의 이름인 '감곡본당'으로 바꾸었습니다.

감곡성당이 더욱 특별한 이유는 성모 신심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감곡성당을 세운 임 가밀로 신부는 어린 시절 성모를 모시는 가르멜 수녀회의 모습에 감동하여, 감곡성당의 주임신부가 된 이후 51년간 성모마리아를 모시고 신실한 생활에 힘썼습니다. 그는 1930년 프랑스 루르드에서 성모상을 들여와 성당에 모셨고, 1939년 조선에 가르멜 수녀원이 들어올 때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런 전통은 이어져, 감곡성당은 2006년 교황청으로부터 공식 '매괴 성모 순례지'로 승인받았습니다.

이처럼 충청북도의 교회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간직한 음성 감곡성당은 1996년 충청북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2006년에는 교황청으로부터 공식 '매괴 성모 순례지'로 승인받아 신앙과 문화의 자리를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복음 13장 34절)

! 여기서 잠깐!

- Q. 천주교에서는 왜 성모마리아를 공경할까요?
- A. 천주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 중에는 “천주교는 성모님을 믿는 종교”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천주교 신앙에서 성모마리아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이자 구원의 협조자, 그리고 우리 신앙의 모범이시기에 특별히 공경하는 분입니다.
- 성모님은 평생 예수님의 삶과 사명을 가까이서 지켜보셨으며, 하느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천주교에서는 성모님을 교회의 어머니이자 신앙생활의 가장 큰 모범으로 공경하고 있습니다.

성모상



일제강점기 감곡본당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1943년 일본군이 성당 옆 마당에 신사를 세우려 한 것입니다. 성당 곁에 신사를 짓는다는 것은 신자들에게 큰 충격이었지요. 당시 본당을 맡고 있던 임가밀로 신부는 공사 예정지에 ‘기적의 패’를 묻고 성모님께 이곳을 지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공사 도중 갑작스러운 폭우가 내려 작업이 중단되었고, 번개가 치며 공사가 지연되었으며, 야생 짐승까지 나타나자 일본군은 낙담하여 결국 계획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적 같은 일을 계기로 임 가밀로 신부와 신자들은 이곳을 성모동산으로 꾸몄습니다.

지금의 성모동산은 프랑스 루르드의 성모동굴을 그대로 본떠 만든 곳으로, 한가운데에는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습니다. 이는 누군가 심은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라난 나무로, 제대를 감싸듯 두 팔을 벌린 듯한 모양이 오랫동안 순례자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지요. 특히 성모성월인 5월이면 전국 각지에서 많은 이가 성모동산을 찾아 기도하며 촛불을 밝힙니다.



성당 안에는 특별한 성모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1930년 성당 건립 당시, 임가밀로 신부가 루르드에서 직접 가져온 성모상입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감곡성당은 북한군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성당 안에서 여러 가지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자, 이것이 성모상 때문이라 생각한 군인들은 성모상을 향해 총을 쏘았습니다. 일곱 발의 총탄이 성모상에 명중했지만 성모상은 파손되지 않았고, 기관총을 쏘을 때도 총알이 비껴갔습니다. 그래서 성모상을 끌어내리려 하자, 그 순간 성모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고 전해집니다. 마침내 군인들은 성모상을 건드리지 못하고 성당에서 물러났습니다.

성모상의 총상 자국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성모 칠고(聖母七苦)’와 연결 지어 묵상하며, 이 성모상을 ‘칠고의 어머니’, ‘매괴의 어머니’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순례자가 이 성모상 앞에서 성모 마리아의 전구를 청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곡박물관



매곡박물관



성당 옆에 있는 매곡박물관은 원래 1934년에 지어진 사제관이었습니다. 성당 건축 후 남은 화강암으로 지어졌는데, 2002년 유물관으로 개조되며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이곳에는 1896년 성당 설립 이후 내려온 다양한 유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은 1914년 제1회 성체거동행사와 매년 성모성심축일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예수 성심기'와 '성모 성심기'입니다. 비단에 동양자수를 놓아 제작한 두 성심기는 2000년 충청북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양산, 제의, 임 가밀로 신부의 고향에서 1936년에 제작한 종 등 당시 신앙의 흔적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임 가밀로 신부가묘



임 가밀로 신부가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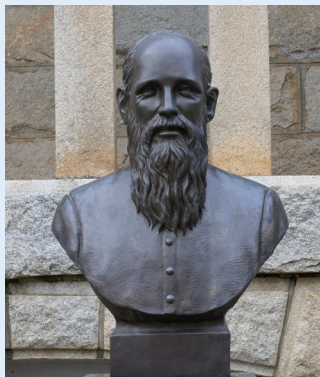
1869년(고종 6)에 프랑스에서 태어난 임 가밀로 신부는 1893년 사제 서품을 받은 뒤 곧바로 조선 선교사로 파견되어, 1896년 현재의 감곡성당을 세웠습니다. 이후 1947년까지 무려 51년 동안 본당을 지키며 신자들과 함께하며, 1914년 성체거동행사 주관, 1943년 일본 신사 건립 반대 등 굵직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늘 “나는 여러분을 만나기 전부터 사랑했습니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며 실천에 옮기곤 하였습니다. 1947년 선종할 때도 “성모여, 저를 구하소서.”라는 기도문으로 생을 마쳤습니다. 처음에는 성당 뒤 매산에 안장되었다가 나중에 성당 소제대 밑으로 이장되면서, 지금은 가묘가 그 흔적을 전하고 있습니다.

임 가밀로 신부



임 가밀로 신부



충청북도 최초의 본당인 감곡성당을 설립한 사람은 바로 프랑스 선교사 임가밀로 신부입니다.

그는 1869년 12월 19일 프랑스 루르드 성지에서 북동 쪽으로 떨어진 작은 마을 아두르(Adour)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9세이던 1888년 파리 외방전 교회에 입회하면서 선교사의 길을 걸었고, 어린 시절 부터 성모마리아에 대한 깊은 신심을 간직해 왔습니다.

1893년(고종 30)은 임 가밀로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해였습니다. 5월 27일 사제품을 받은 뒤, 7월 조선 선교 사로 임명되어 9월 제물포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첫 환영

식에서 스스로 한국 이름을 '임가미(任加彌)'로 정하며 "나는 조선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할 만큼 조선 선교에 대한 각오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서울 주교관에서 머무르며 조선말과 풍습을 익히기 시작했으며, 12월 초에는 마리네 공소(현 경기도 안성군 양성면 미산리)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언어와 문화를 익히며 신자들과 교류하다가, 뮌헨 주교의 명으로 여주 부영골 본당 주임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러나 부영골은 지리적으로 불리해 본당을 이전할 필요성이 컸습니다.

임 가밀로 신부는 1894년부터 새 성당 터를 물색하다가, 충주 감곡에 있던 민응식의 대저택을 눈여겨보게 됩니다. 이 집은 1882년(고종 19) 임오군란 때 명성황후(明成皇后, 1851~1895)가 피신했던 곳으로, 후에 109칸에 달하는 대저택으로 확장된 곳이었습니다. 그는 이 집을 성모님께 봉헌할 마음으로 기도하며, 본당 이전을 추진했습니다. 1895년 을미사변(乙未事變)으로 나라가 큰 혼란에 빠졌을 때, 이 저택도 불타버렸으나, 1896년 5월 결국 대지를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임 가밀로 신부는 이를 성모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성당의 주보를 '매괴(玫瑰)의 성모님'으로 정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오늘날 감곡성당의 시작입니다.



이후 그는 51년 동안 감곡본당을 지키며 사목에 헌신했습니다. 1914년에는 성체거동행사를 주도했고, 1943년에는 성당 인근에 일본 신사 건립을 막아내는 등 신앙을 지키기 위해 힘썼습니다. 또한 고종황제로부터 하사받은 태극기를 보관하다가, 광복을 맞이한 1945년 성당에 게양하여 주민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임 가밀로 신부는 평소 "나는 여러분을 만나기 전부터 사랑했습니다"라는 말을 자주 하며, 신자들과 지역민들에 대한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했습니다. 1947년 10월 25일, 78세의 나이로 "성모여, 저를 구하소서"라는 마지막 기도를 남기고 선종하였습니다.

! 여기서 잠깐!

Q. 성당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은 어디일까?

A. 가톨릭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은 바로 '제대'입니다. 가톨릭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의 길로 나아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희생을 기념하는 의식이 바로 미사입니다. 미사에 참석한 신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사도들에게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누어 주신 것처럼, 빵과 포도주를 받아 모십니다. 이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되는 거룩한 자리가 바로 제대입니다. 그래서 성당에서 제대는 신앙 생활의 중심이자, 신자들이 마음을 모아 경배하는 가장 중요한 공간입니다.



충주 내덕동 주교좌 성당 제대



제천 배론성지 | 충청북도 기념물

주 소 : 제천시 봉양읍 배론성지길 296

개방시간 : 9:00 ~ 17:00 (휴게시간 12:30~13:00)

문의사항 : 043-651-4527



제천 배론성지



제천 배론성지는 우리나라 천주교 역사에서 중요한 발자취를 지닌 성지입니다. 원래 이곳은 '팔송정 도점촌'이라 불렸으나, 마을 골짜기의 형상이 배의 밑바닥과 같다고 하여 '배론(舟論)'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1791년(정조 15)에 박해를 피해 온 신자들이 이곳에 정착해 농사를 짓고 웅기를 만들며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으나, 1801년 신유박해 때 마을이 파괴되는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이후 1840년대가 되어서야 다시 마을이 세워졌고, 1855년부터는 푸르티에 가롤로(Pourthi'e, 1830~1866) 신부와 프티니콜라 미카엘(Petitnicolas, Michel Alexander, 1828~1866) 신부 등이 머물며 신앙 공동체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1866년 병인박해로 이들 선교사가 순교하면서 배론은 또 한 번 고난을 맞이했습니다. 이처럼 배론성지는 신앙의 빛과 박해의 어둠이 교차하는 자리로, 오늘날까지 많은 신자가 찾는 신앙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 여기서 잠깐!

Q. 성당에는 왜 닭 장식을 할까?

A. 닭은 새벽을 가장 먼저 알리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성당 꼭대기에 닭 모양 장식을 달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줄 것이라는 뜻을 담았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닭이 믿음을 지키지 못한 순간을 깨우는 경고의 의미로 나오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 베드로 사도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 아니냐는 물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정합니다. 바로 그 때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렸고,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립니다. 이처럼 닭은 오늘도 성당 꼭대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굳건한지 묻습니다.



제천 신봉동 성당 지붕 닭장식



이곳은 원주교구 설립 50주년을 기념하며 새롭게 마련한 시설로, 2018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2020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배론성지는 한국 천주교 역사 속에서 여러 차례의 박해와 순교, 신학교 설립 같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던 곳으로, 언제나 '기도'와 함께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흔히 '기도의 땅'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세워진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교는 전통의 기도를 배우고, 자신만의 기도를 찾아가며, 온전히 기도에 머물 수 있도록 마련된 집입니다. 이곳에 오는 이들이 기도의 힘을 다시금 느끼게 해주는 공간이지요. 단순한 교육 공간을 넘어, 기도의 정신을 되살리고 나누는 배론성지의 새로운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론성지 안에는 1801년 신유박해를 피해 숨어 지낸 항사영 알렉시오(1775~1801)의 흔적이 남아 있는 토굴이 있습니다. 이 토굴은 마을의 옹기굴을 가장해 만들어졌으며, 항사영은 약 8개월 동안 이곳에 머물며 교회의 보존과 재건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중국 북경교구장 구베아(Alexandre de Gouvea, 1751~1808) 주교에게 신유박해의 진행 상황과 순교자들의 이야기, 교회 재건과 신앙 자유를 얻는 방안 등을 담은 편지를 작성했습니다. 이 편지를 '백서(帛書)'라 부르며, 항사영은 동료 황심(黃沁, 1756~1801) 토마스를 통해 중국으로 전달하도록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황심 토마스가 붙잡히면서 백서의 내용이 드러나고, 항사영 역시 배론에서 체포되어 한양 의금부로 끌려가 순교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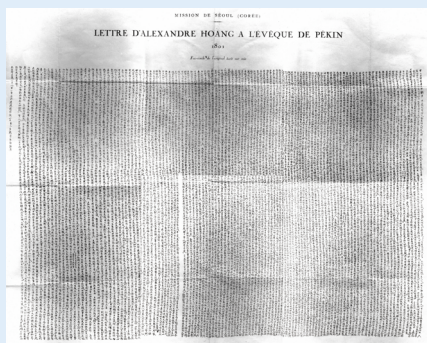
이 토굴은 겉으로 보기에 평범한 옹기굴처럼 보이지만, 당시 신앙인들이 겪은 시련과, 신앙을 지키기 위한 항사영의 용기와 지혜를 떠올릴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공간입니다. 그가 남긴 '백서'는 오늘날까지 신앙과 용기의 상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황사영 백서'



황사영 백서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나자, 황사영 알렉시오는 중국인 주문모 신부가 처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충청북도 제천 배론[舟論]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는 이 토굴에서 조선 정부의 천주교 박해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고, 교회의 재건과 신앙의 자유를 호소하는 편지를 작성했습니다. '황사영 백서(帛書)'라 불리는 이 편지는 중국 북경의 구베아 주교에게 전달하려 했지만, 전달 과정에서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황사영은 27세의 나이에 역모죄라는 혐의를 받아 서소문 밖에서 처형당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제공

백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째, 박해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상황,
둘째, 순교자들의 이야기, 셋째,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재건할지에 대한 계획입니다.
백서의 일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할 수만 있다면, 병선 수백 척에 정병(精兵) 5~6만, 대포 등 날카롭고 강한
병기를 많이 싣고, 겸하여 글을 잘하고 사리에 밝은 중국 선비 3~4명을 데리고
오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의 해안에 정박하여 국왕에게 글을 보내 선교를 용인
하고 우호 조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십시오. 그리고 국왕에게 '한 사람의 선교사
를 받아들여 온 나라가 화를 입지 않도록 하라.'고 요청하십시오”

(백서 110-111행)

황사영은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조선 사회의 한 지식인으로서 깊은 고민을 겪었습니다. 그는
외국의 도움을 통해 신앙의 자유를 얻고자 했지만, 무력을 동원하는 방식이 조선 사회와 국왕
에게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 '신앙을 지키는 길인가, 아니면 모반의 길인가?'
라는 갈림길에서 방황한 것입니다. 황사영의 이런 선택 때문에 다블뤼 주교는 훗날 그를
'하느님의 종' 후보에서 제외했지만, 황사영의 깊은 신앙과 순교의 의미는 결코 훼손되지
않습니다. 그는 신앙과 조국 사이에서 치열하게 고민했던 조선인 신앙인의 모습을 오늘날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 요셉 신학당



성 요셉 신학당



1855년(철종 6) 메스트르(Joseph Maistre) 신부에 의해 설립된 성 요셉 신학당은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교입니다. 교우촌 회장이던 성 장주기(張周基, 1803~1866) 요셉이 자신의 집을
학당으로 내어주었고, 이듬해 푸르티에 신부가 교장, 프티니콜라 신부가 교수로 신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수업은 라틴어과와 신학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수사학·철학·신학을 교육하는 한편, 교
리서 번역과 '라틴어-한국어-한문' 사전 편찬 같은 학문적 작업도 이루어졌습니다. 병인박해로
두 신부가 체포되면서 11년 만에 학교의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11년이라는 짧은 기간이
였으나, 성 요셉 신학당은 한국 교회의 최초의 신학교이자 근대적 교육기관으로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최양업 토마스 신부묘



배론성지에는 한국 천주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잠들어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한국인 사제인 최양업 토마스 신부입니다. 그는 1821년 충청도 홍주(옛 충남 청양군)에서 태어났으며, 1836년(헌종 2)에 조선에 입국한 프랑스 선교사 모방(Pierre Maubant, 1803~1839) 신부에 의해 신학생으로 선발되어 마카오에서 공부했습니다. 1849년(헌종 15) 사제 서품을 받은 후 조선으로 돌아온 최양업 신부는 12년 간, 박해를 피해 숨어 지내는 신자들을 만나기 위해 9만리 길을 걸었습니다. 또 선교사들의 조선 입국을 돕고 신학생을 양성하는 일과 순교자들의 기록을 정리하는 일에도 힘썼습니다.

1861년(철종 12), 과로와 장티푸스로 40세의 나이로 선종한 그는 이곳 배론에 묻혔습니다. 최양업 신부와 헌신적인 사제 활동은 그에게 '길의 사나이', '땀의 순교자'라는 별명을 안겨 주었으며, 오늘날에도 많은 신앙인에게 본보기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천주교의 주요 행사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 WYD)

세계청년대회는 1984년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가 로마 성년 희년을 맞아 전 세계 청년들을 초청하면서 시작된 국제적인 가톨릭 행사입니다. 이 대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전 세계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앙을 체험하고, 서로의 문화와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자리입니다.

대회에서는 '세계청년대회의 십자가'와 '로마 백성의 구원자 성모 성화'와 같은 상징 행사가 진행되며, 청년들은 기도와 미사, 다양한 문화 체험을 통해 신앙과 우정을 동시에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2027년에는 이 세계청년대회가 우리나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국내외 많은 청년이 함께 모여 믿음과 희망을 나누는 특별한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Q. 하나님의 은총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A.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우리가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특별한 표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을 '성사'라고 부릅니다. 성사는 예수님이 천주교 신자들을 만나는 특별한 방법입니다. 성사를 받으면 인간은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성사에는 7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세례성사, 성령의 도움으로 신앙의 어른이 되는 견진성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성체성사,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고해성사, 신랑과 신부가 부부가 되는 혼인성사, 거룩한 부르심을 받고 성직자가 되는 성품성사, 죽음을 앞두고 삶의 마지막에 받는 병자성사입니다. 이렇게 일곱 가지 성사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삶 속에서 사랑과 믿음을 실천하도록 도와줍니다.



제천 학산공소

주 소 : 제천시 봉양읍 제원로10길 25
 개방시간 : 상시 개방
 문의사항 : 033-763-2343 (원주교구 용수막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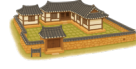


제천 학산공소



학산공소는 남상교(南尙敎, 1784~1866) 아우구스티노와 성인 남종삼(南鍾三, 1817~1866) 요한 부자가 살던 묘재 유택을 중심으로 신앙의 뿌리를 이어온 곳입니다. 병인박해 당시 신자들이 흩어지며 마을은 한동안 사라졌지만, 1920년대 들어 다시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마을이 다시 생겨나면서 1938년에는 '조선복자강당'이라는 이름으로 첫 공소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공소란 신부가 상주하지 않는 지역에 세워진 작은 예배소로, 본당 성당이 멀리 있는 마을 신자들이 모여 기도하고 교리를 이어가던 공간입니다. 당시에는 '묘재공소'라 불렸으며, 유택 앞 왼편에 자리했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은 한국전쟁 중 불에 타 사라졌습니다. 이후 1955년 9월 두 번째 공소가 세워졌지만, 약 30년이 지나면서 건물이 낡아 안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에 1987년 유택 보수 작업을 시작으로 새 공소 건립이 추진되었고, 1989년 현재의 자리에 세워지면서 '학산공소'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신자들의 신앙 공간은 꾸준히 확장되었습니다. 1999년에는 유택 뒤편에 성모상을 세웠으며, 2013년에는 공소 옆에 교육관을 건립하였습니다. 오늘날 학산공소는 남상교 가문의 신앙을 기리며, 신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친교를 나누는 소중한 장소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천 남상교 유택지

주 소 :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 326-1
 개방시간 : 상시 개방
 문의사항 : 033-763-2343 (원주교구 용수막성당)



남상교 유택지



'묘재 성지'라고도 불리는 남상교 유택지는 신앙을 위해 목숨을 바친 가족의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자리입니다. 그 주인공은 남상교 아우구스티노와 그의 양자가 된 성인 남종삼 요한 부자입니다.

남상교 아우구스티노는 관직에서 물러난 뒤 신앙생활에 전념하기 위해 이곳으로 이주했습니다. 그의 조카였던 남종삼 요한은 성장 후 남상교의 양자가 되었고, 양부의 영향을 깊이 받아 신앙을 이어갔습니다. 남종삼은 관직에 있으면서도 리델 신부에게 조선어를 가르치고, 베르뇌 주교와 다블리 주교 등 교구장들과 교류하며 신앙을 실천했습니다. 그러나 1866년 병인박해가 일어나자 남종삼 요한은 체포되어, 서소문 밖 네거리에서 49세의 나이로 순교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남상교 아우구스티노도 체포되어 83세의 나이에 공주에서 옥사했습니다. 가족의 시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종삼의 아내 이조이 필로메나와 큰아들 남명희도 교수형으로 순교했고, 살아남은 자녀들인 남규희와 두 딸 데레사, 막달레나는 노비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남상교 가문은 3대에 걸쳐 4명의 순교자를 낳았고, 가족 전체가 신앙을 지켜내려는 굳은 의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오늘날 이곳은 이들의 삶과 희생을 기억하는 중요한 신앙의 장소로 남아 있습니다.

! 여기서 잠깐!

Q. 미사 때 많은 동작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몸과 마음, 영혼이 하나로 연결된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미사 때 몸과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미사 때 하는 여러 동작과 자세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예배에 더 정성을 담는 방법입니다. 서 있는 자세는 깨어 있는 마음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감사와 존경을 나타냅니다. 앉는 자세는 말씀을 듣고 배우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무릎 꿇는 자세는 겸손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나타내며, 허리를 숙이고 머리를 굽히는 자세는 예의를 갖추거나 축복을 받을 때 취합니다. 엎드리는 자세는 아주 겸손하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함께 몸으로 신앙을 표현하면,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Q. 미사 때 향을 피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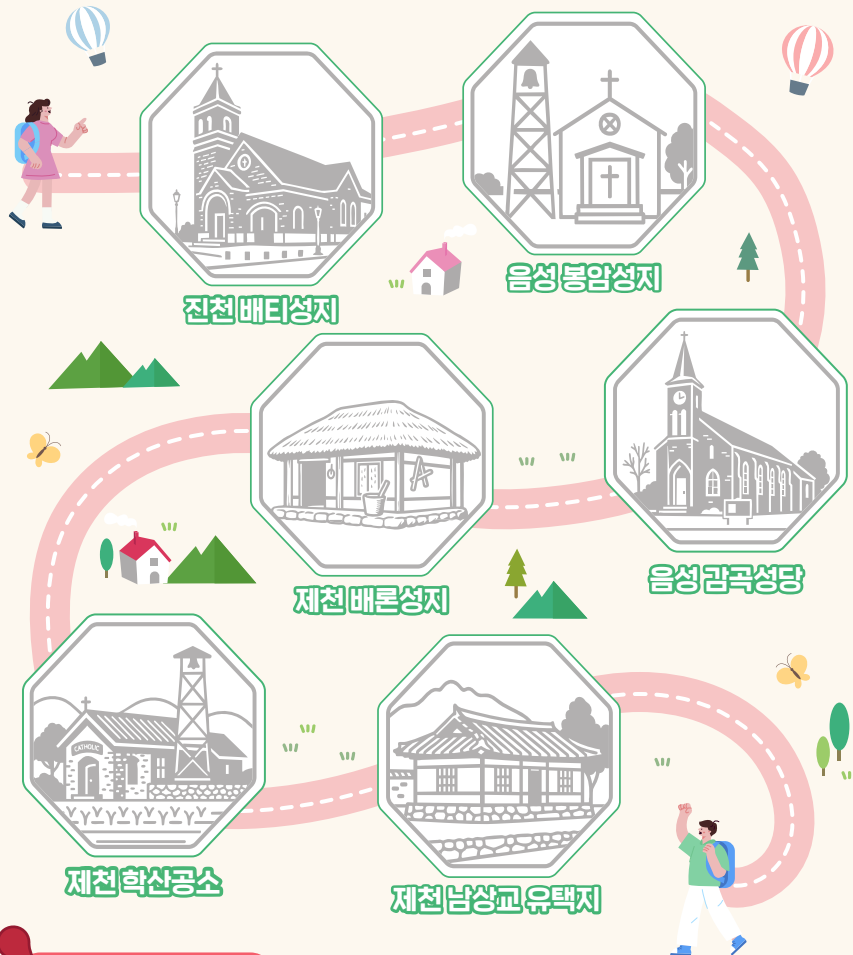
A. 향은 마음과 공간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바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성당을 봉헌할 때 향을 피우는 것은 그곳이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곳임을 보여줍니다. 미사 중 십자가, 제대, 복음서에 향을 피우는 것은 공경의 표시입니다. 예물에 향을 피우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듯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닿기를 기원하는 뜻이 됩니다. 사제나 신자에게 향을 피우면 축복과 성화를 의미합니다. 장례식에서 시신에 향을 피우는 것은 존경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소통하는 특별한 방법입니다.

Q. 미사 때 종을 치는 의미는?

A. 미사 중 종을 치는 것은,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하는 중요한 순간임을 신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종소리를 들으면 신자들은 중요한 시간임을 기억하고, 성체와 성혈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교회에서 종을 사용한 것은 5세기 말 프랑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시계가 없던 사람들에게 미사 시간을 알리거나, 기도 시간을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종소리는 우리가 잠시 세상일을 멈추고,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은총의✦길 스탬프 투어



스탬프 찍는 방법

- ✿ 처음 방문한 장소에 비치된 안내책자를 챙겨 스탬프를 찍어요.
- ✿ 은총의 길 스탬프를 3곳 이상 찍으면 소정의 기념품을 드려요(선착순 증정)
- ✿ 기념품 수령 장소는 QR코드로 확인해주세요



기념품 수령 장소

어울리길을 소개합니다!

공감의♥길 다름을 견고 마음을 잇다

서로 다른 종교문화가 어우러진 길을 따라 걷는 여정입니다. 서로 다른 신념 속에서 발견한 공통된 가치에 공감하며,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평화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습니다.

마음쉬는♣길 세계로 걷다

충북의 대표 불교유산을 중심으로 한 여정입니다. 천년 고찰의 전통과 세계적 가치를 느끼며 자연 속에서 마음을 비우고 치유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길 벽돌 위에 새긴 마음

충북의 근대 개신교 건축유산을 따라 걷는 여정입니다. 서양식 건축물과 선교자들의 발자취 속에서 근대문화의 의미와 신앙을 실천했던 흔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울리길 홈페이지(<http://www.cbrp.co.kr>)"에서 추억을 함께 나누어요!



홈페이지 QR

집필자

주영길(천주교 청주교구 사무처장)
김인환(천주교 청주교구 교구장 비서)
강우신(천주교 청주교구 사무처 차장)
정기범(충북대학교 사학과)

박소연(충청북도역사문화연구원 교육활용팀장)
이지오(충청북도역사문화연구원 교육활용팀)
이수영(충청북도역사문화연구원 교육활용팀)

은총의 길 - 기억의 발걸음

발 행 일 2025. 10.
발 행 처 충청북도역사문화연구원
주 소 청주시 청원구 밀레니엄4로 16
전 화 043-279-5400
홈페이지 <https://www.chungbuk.re.kr:6038/>
디 자 인 디자인신화
인 쇄 소문인쇄사

저작권자 ©충청북도·충청북도역사문화연구원

본 책자의 저작권은 충청북도, 충청북도역사문화연구원에 있으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하시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025년
종교평화
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

공존의 증언, 융합의 여정

